

요한 1 서 묵상 24
(9/26/2020, 토)

찬양: 279(337)(인애하신 구세주여)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5:16-17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16 절 -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요한의 구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과 보혈의 공로에 의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라고 말한 죄수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라고 말씀하시며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번역된 말의 원어대로 직역하면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롬 6:23 -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완전한 멸망으로서의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12:31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히 6:4-6 -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마 12:31 에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내용,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은 성령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 12:31 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은 히 6:4-6 에서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전적인 배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 의도적이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훼방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타락하여 스스로 더럽히는 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용서받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7 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말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만 용서받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목적으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에서는 영적 지식을 가질 경우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더러운 육체의 죄악이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모든 불의가 죄로되”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함으로써,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한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 전해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을 함께 제시함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사람들의 회개와 중생과 믿음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실천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극악한 죄악에 빠진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죄와 타락에 젖어 있는 이 땅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영을 더해 주셔서 진정한 영혼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이 땅의 참된 회복과 갱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3. 온 세계에 파송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동역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역에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